

국제

90.8.21

흔들리는 동독 경제...사회보장 '파산'

동유럽 그변화의한징에서 <2>

1871년 독일의 민족통일은 1866년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간의 그리고 1870년 프러시아와 프랑스간의 연속적인 전쟁의 산물이었다.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프러시아가 승리한 직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그 전쟁의 부정적인 결과를 잘 깨닫고 있으면서도 그를 통해 독일의 통일이 촉진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정확히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일 이외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독백했다.

동독 반대하나 어쩔수없어

오늘날 독일의 재통일을 바라보면서 서독의 좌파 지식인들은 마르크스·엥겔스와 비슷한 감회에 쌓여 있는 듯하다. 그들 대부

로 '다르긴 했지만 1871년 비스마르크에 의한 독일의 통일도 토지 귀족과 군부 등 반동적인 사회계급의 힘에 의해 달성되었다. 그 결과로 반민주적이고 팽창주의적인 민족주의가 범람하게 되고 마침내는 1차대전의 도발과 히틀러의 광란으로 귀결되었다.

오늘날의 독일에서도 예상치도 기대치도 않았던 일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일어난 셈이 되었다. 모두들 어리둥절하는 사이에 기민당의 폴 수상은 대단히 민첩하게 통일과정을 몰아붙였다. 그는 '제2의 비스마르크'로 역사에 길이 기록될지 무척 갈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손쉽게 진보세력까지 무장해제시켜 버렸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알트파터 교수는 통일과정에서 진보세력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는



18여년간 동독의 최고권력자였던 에리히 호네커 전 사회주의통일당 서기장이 실각되기 전에 거주하던 집. 당 정치국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반틀리츠에 있는 이 집은 현재 국영요양원으로 바뀌었다.

전문직 노동자 고임금 기대 서독으로
호네커 '호화판' 저택 평범한 2층집에 불과

분은 원칙적으로 독일의 통일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통일이 기정사실화되어 가는 지금 그들은 "사실을 그저 받아들이는 일" 이외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고백한다.

물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운동의 민족적 결집이라는 관점에서 독일에서의 민족국가 수립을 열렬히 환영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서독의 좌파 지식인들은 통일을 부정적인 현상으로 간주한다.

베를린 대학 정치학부의 아그노리 교수는 두 가지 차원에서 독일의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 그는 "월트크 이후의 테러 열기나 민족적 흥분에서 보듯이 이 통일은 우선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새롭게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전 독일에 걸쳐 자유를 회복했지만 다시 광신적이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 다음 단계로 통일된 독일은 '평화적인' 세번째의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예컨대 "동유럽 내의 독일계 소수민족과 야합함으로써 국경문제를 새롭게 제기하는 등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강화된 경제적 힘을 활용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독일에서의 통일의 주도권은 항상 보수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지금과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물음에 "당분간은 거의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제법 쉬운 어조로 대답했다. 그는 또 "나는 지난 1월의 화해통합 논쟁 때 화해통합은 동독인들에게 물가인상, 높은 실업률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고 그것은 지금 적중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고를 되뇌이는 것은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꾸짖었다.

알트파터 교수의 분석처럼 대부분의 동독인들은 통일로 인해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득만을 확보하고 있다. 정치적 자유를 얻은 대신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실업에 시달리고 주택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처럼 사회보장이 심각하게 흔들리게 되면서 서민들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서독에서도 12월 선거 이후에는 분명히 세금이 인상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예컨대 소비세의 인상이 된다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마련이다.

이러한 것들이 쌓여 결국은 위기상황이 조성될 것이다. 문제는 그 위기가 과도적이나,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이 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알트파터 교수는 동독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구조적 저발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기술수준이 높은 동독의 전문직 노동자는 임금격차 때문에 서독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동독에는 낮은 수준의 기술을 지닌 노동자들만 남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투자의 유인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거기에 만약 세계경제의 위기가 덧붙여진다면 상황은 견줄 수 없이 악화될 수도 있다.

'낮에는 사회주의를 하고 밤에는 자본주의를 시칭'함으로써 동독 주민들은 서독인의 생활수준과 자신들의 그것을 꾸준히 비교할 수 있는 '호기'를 갖고 있었다. 거기에서 비롯된 갈등과 불만이 결국은 베를린 장벽의 파괴로까지 연결되었다.

자본주의 탐욕 서서히 침투

그러나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의 시민들이 그러하듯이 동독의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검소하고 순박했다. 비록 가난하긴 했지만 그들은 시민적 절제와 질서의 고상함을 사랑하고 있다. 가난한 자본주의 나라에서 전형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눈치와 약삭빠름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히 '사회주의' 체제의 자랑할 만한 유산이라 단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경쟁의식과 탐욕스러움이 서서히 이들의 건강한 폐부를 갈아먹기 시작하고 있다. 이미 지난 3월의 동독 총선에서는 동독 투표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당시 동독 돈으로 6백

마르크나 호가하던 손목시계들이 서독의 기민당 정부에 의해 대량으로 살포되었다. 6백마르크라면 동독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절반이 넘는 가격이다.

나도 이번 여행길에서 어느 동독인을 '자본주의적으로' 매수한 적이 있다. 베를린에서 북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반틀리츠라는 곳에는 호네커 체제 당시 23명의 정치국원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밀폐된 주거지역이 있다. 1956년의 헝가리 사태 이후 정부요인의 신변안전을 위해 감시탑과 철벽으로 둘러쳐서 만든 특수 주거단지이다. 동독 주민들도 이런 장소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정도였다.

물론 그들의 주말별장 등은 다른 곳에 널려 있었지만 나는 동독의 정부요인들이 엄청나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로 달려갔다. 그들은 대체로 주중에만 여기서 가족들과 기거를 했다. 그곳에는 물론 사우나, 수영장, 도서관, 의료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원으로 바뀌었다.

이 집단주거지역의 존재가 항간에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몰려왔고, 따라서 지금은 특수한 출입허가증을 가진 사람만이 내왕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되어 있었다. 나는 호기

심을 뿌리칠 수 없어 처음에는 '좋은 말로 타일렀고' 그것이 통하지 않자 20달러를 수위의 호주머니 속으로 던지시 밀어넣었다. 저항은 눈에 띄게 약화되었다.

20달러 뇌물로 경비원 매수

나는 20달러라는 뇌물까지 바쳐가면서 호네커가 살았다는 집을 향해 달려갔으나 사실 본진 생각이 치밀어오를 정도로 그 집은 평범한(?) 2층집에 지나지 않았다. 문이 잠겨서 안으로 들어가 볼 수는 없었으나 우리 식으로 따져도 중소기업체 사장 정도만 되면 그보다 훨씬 멋드러진 집에서 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한 나라의 운명을 걸머지고 있던 정부의 핵심인사들이 왜 이처럼 국민들의 시선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던가 하는 데 있다. 왜 그들은 장벽 속에 또 하나의 다른 장벽을 만들어 놓고 살지 않으면 안되었던가?

이 문제는 동독을 지배했던 사회체제는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가 그리고 그 체제의 몰락, 즉 '사회주의의 자본주의로의 회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과 직결되어 있다.

박 호 성

(서강대교수·정치학)